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생명 내모습

15면에서 계속

들어놓은 게 있어야 어느 때에 확 자기 앞에 닥았을 때 좋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찰나에 해버리죠. 이거는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그래요.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선도 뛰어넘고 팔정도도 뛰어넘고 십이연기법도 공법이 돼서 뛰어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이 공부하는 그날 찰나에 이렇게 한생각에 생각이 지혜로와지면 그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놓고 가다보면 정말 오로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 바로 내면의 공심체가 있다. 또 공심기운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물을 한그릇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게 아니다. 더불어 같이 하기 때문에 누가 먹었다 이게 먹었다 저게 먹었다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게 인연이니까 말합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전부 난리에 죽고 그런 영가가 누적이 되면은 나라가 좋지 않고 세계가 좋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별성은 훗날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훗날이요. 별성하고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도를 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은 전지에 죄가 많으니까 천도가 안되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든 자기 뿌리가 자기 몸중이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안다면 어떻게 뿌리를 무시 하겠습니까. 믿는다 안믿는다 그런 언어가 어디 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뿌리가 그렇게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여기가서 찾고 저기가서 찾고 타의에서 구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절대로. 풍누는 것, 밥먹는 것, 자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깨닫는 것, 이거 대신 누가 해줄디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도시기는 데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란 건 이거 아주 피치못할 아픔이 닥쳐요. 상대방도 나도 더불어 아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했던들 한철 사는 건데 한철 사는 동안 남을 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살게 돼있어요. 더불어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가 다 나를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신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요.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일체만물만생이 다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다 한 말씀이 그것을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도 내가 어느 거를 건졌을 때 내가 건졌다고 할 수 있죠.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한 사이가 없다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다못해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세상에 내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둘하나 나무하나 물 흐르는 것, 산, 팔만대장경 이 모두가 감사 안한 게 없어요.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나는 인간이고 저건 축생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리저 말라 이거예요. 그 축생도 내 스승이예요. 왜? 내가 그렇게 처참한 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내가 그 꼴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다 내 스승이예요.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서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아 있을 때 몽친 응어리때문에 죽어있어도 어디 한발짝을 떼어놓지 못해요. 이런 얘

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됐거든. 안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빠듯해서 아프다 이럴때 '이거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내 몸이 고달픈데 너의 집이 고달픈해. 그러면 너가 뭐가 좋겠어 모두.' 그러면 그냥저냥 나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은 다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우리가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뛰든지 만들어 쓰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죠.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됐거든. 안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빠듯해서 아프다 이럴때 '이거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내 몸이 고달픈데 너의 집이 고달픈해. 그러면 너가 뭐가 좋겠어 모두.' 그러면 그냥저냥 나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은 다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우리가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뛰든지 만들어 쓰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죠.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오신통을 했어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줄수 없으면 허탕"

지 말아야지 그럼. 쉬지않고 돌아가게 할려면, 아무리 자세히 해줄려고 내가 애를 써도 상대쪽에서 받아들이는 건 삼분의 일도 안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 조상님들의 문제도 천도시키세요. 왜냐하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것이 그냥 모두 달려있거든요. 죽은 사람한테나 산 사람한테나 그렇게 연결 돼있으니까 모든 것을, 즉 죽은 사람들이 조상들이라면 자기 주인공에 다

놓고 해라 이랬느냐 하면 그건 딱이 딱이 아니라 애김니다. 살아생전에 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먹던 그 습이 없어져야 동글게 그냥 부처님 자리로 한자리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습이 있으면 한자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령들한테 그 모든 걸 말없이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로 자기뿌리를 자기가 믿는다면 자기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두 놓고 한자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대로 승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가 영화화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배우들이 영화만들때 자기 배역만 하고 딱 돌리나면 그뿐이죠.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는 것도 영화 배역같은 건데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죽는 거를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서 죽을 때지 못하고 남은 식구들도 폐질 못하니깐 내던질 수가 없거든요. 내던지면 살한테 내던지질 못해요.

그러나 부처님법은 요만큼도 거짓이 없고 진리는 요만큼도 거짓이 없고 에누리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다 마찬가지로 입다미는 스님네들은 특히 남을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봐도 '이거 무엇에다 쓰지?' 이럴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쓸 사람이 또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된다가 쓰고, 그것이 그 사람네들을 위해서 써줘야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면 안돼요. 그거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빈돈인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한낱 벌양으로 그 노동하는 사람,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하고 버는 사람, 그 애간장을 태우고 버는 사람, 별사람 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보셨나구요. 그 돈을 보는 사람이 나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조상들을 잘 챙겨서 그 날을 잊지말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자식들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만 외아들이 죽자 아들의 복을 빌며 계속 아들의 제사를 지냈더라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부자집에 태어나서 사는데 폭어는 날 그 날짜만 되면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삿밥을 먹고 온대요 꿈에. 그러니까 참 이상도 하다. 일년에 한번씩은 폭어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삿밥을 먹고 오는데 머리가 하얗게 섰노파가 앉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를 보고 온대요.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길래 그걸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전생의 어머니다. 전생에서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다. 꿈에 갔던 길을 찾아서 그 집을 한번 가서 보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날도 제삿날이라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우딱 집이 있더라는 거죠. 비록 공승이지만 몇 해를 두고 다녔으니까 길을 잘 알죠. 들어가보니가 제삿상을 차려놓고 꿈에서 본 노파가 앉아서 자기 공부하는 차원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줘요. 잘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구요. 조상도 살다가 착을 가지고 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니 불에 들어가면 타죽을 줄 알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죽을 줄 알고 또 내 몸중이를 건너가 되는데 내 몸중이 속에 수많은 벌레들이 왕창 커져 가지고 세균들이 모두 널려져 있으니 그걸 밟고 어떻게 걸니까. 그러니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공부를 하거든 전부 거기가 돌아가게 넣으세요. '주인공 전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 하고 다 거기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상들이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천명이든 그냥 다 자기 아는 것만큼 다 알게 됩니다. 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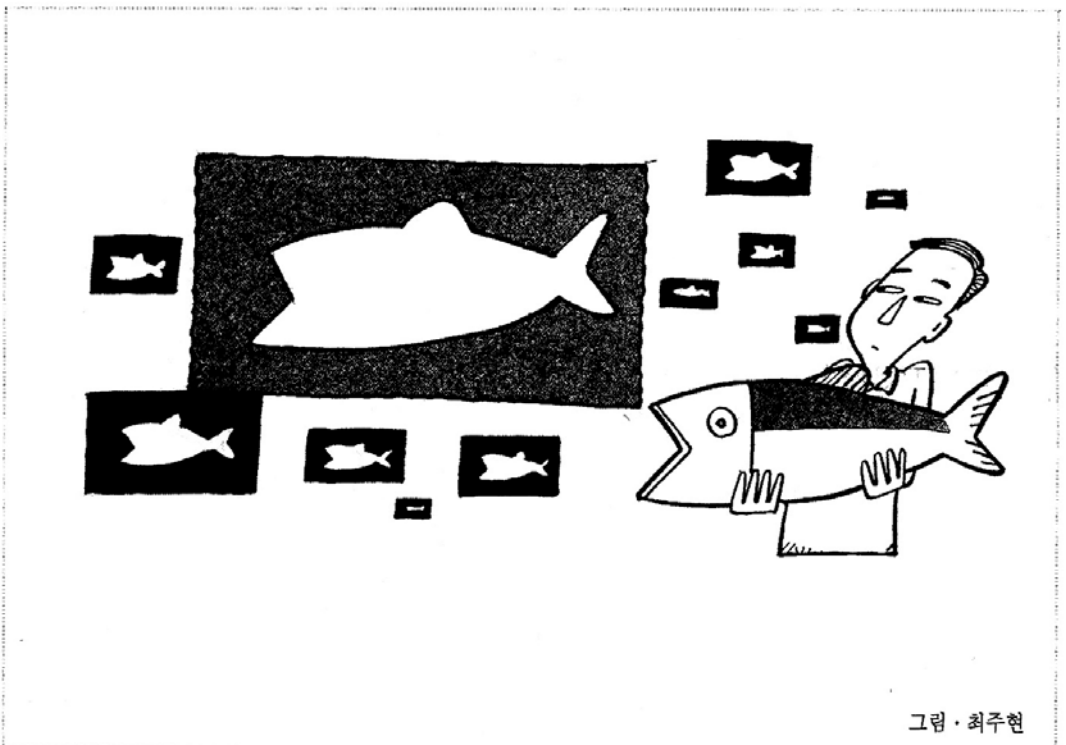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긴사람 보면 길게 짧은사람 보면 짧게 한마음 되어 주세요

저래서 안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자기 심정으로 그냥 해줘도 되는 이치죠. 또 이 공부하는데 죄가 있고 없고 이거를 따지고 또 이런 사람 미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남한테 이익되게 해줄려면 무조건이지 어떻게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는 것이지 이 부처님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이예요. 무조건 무주상이예요. 공심으로서 그냥 무주상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고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찰나면은 사람이 저 삼천년전으로도 뛰고 삼천년 후로도 뛰고 일초전으로도 뛰고 일초후로도 뛸텐데, 이런 생무지나 마음이 항상 살던 습이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온 습이 있고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거는 정말이지 못해, 우리는 도저히 못해,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해.' 이런 생각때문에 못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로막아서 밝은 생각이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아픈 눈물이 나는 것은 축생이나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산사람이나 모두가 이거는 극치에 이르러서, 수레가 돌아가는 데 거기가 꼬달려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예요.

우리 몸하나의 주머니에서 벗어나면 이 지구 주머니에서도 벗어나 수가 있는 거지, 내 몸통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큰 주머니에서도 벗어나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문젠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작업을 해라. 오로지 너가 있으면은 너의 불성도 너한테 있다. 오로지 너의 불성만이 너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를 살게 할 수 있고 공부하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거를 영 말을 믿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잘 믿으면서 자기가 자기 믿으려는데 왜 안 믿습니까. 꽃나무든 나무

남 위하다 보면 나도 같이 살게돼 있어요 사람답게 사람노릇 하는 게 잘사는 거죠

기 하나 할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사람이 치어죽었죠. 그 혼이 날라서 딱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없던 말이에요 자기 몸중이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몸중이를 찾으니가 없더라 얘기에요. 이럴 때 남의 몸중이이라도 가져야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영 한발짝도 떼놓지 못하거든요. 그래 살아생전에 깨우쳐지지 살아생전에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도 깨우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살던 그 습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따로 있고 높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웬 줄 아십니까? 그걸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요. 왜? 물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는 배 한 무더기로 수없이 진화되고 형성해서 돌아가는 수레를 얘기 하셨습니까.

'어느때 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난리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 습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도 안붙잡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몇번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다 왜냐 때사야 뒤에 천천히 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미래가 좋은 거예요. 미래가 뭐 다른 건가요. 미래가 오늘이지. 내 일이라도 오늘이고 어제라도 오늘이예요.

어찌고 이론을 거기가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그리고 항상 그러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만나더라도 한생각을 내주세요.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를 도와 주더라도 그걸로써 그만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렇지도 말고요.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준거니까, 그것은 남들이 눈물을 다 한데 합쳐서 갖다 놓은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스레기라고 해도 좋고 눈을 방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그런 걸 기쁘게 내가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내가 준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도 그냥 함이 없이 놓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 뭐 액운이 안온다고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감기가 안오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다고도 하지 말라구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럼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심이 되고 공식이 되니까 안에 있는 생명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 양으로 모두 작용을 해요. 이게 모든 생명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러니 이 집이 무너지면 자

막일 줄을 모른다면 그거 허탕이지 그게 무슨 도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후년에는 어떻게 팔자가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목마른 사람 물 갖다줄 수 없다면 이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다 하는 난설은 다 필요없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부처님이 안계실 때도 진리는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 불교라는 것은 진리의 이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하게끔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전부가 불교인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전부가 불교 주머니 안에서 허둥지둥 난리를 치고 살지 어디 겁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죠. 그리고 항상 선이 끊어지지 않게 선을 하라고 하는데 선이란 건 없었으면 좌선이고 서 있으면 입선이고 누워서 자는 것은 와선이고 일하는 것은 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선이 다 그냥 공해버렸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리요. 꼭 좌선하고 앉아야만 선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좌선하고 앉았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하고 앉지 않았을때는 지구가 안돌아가는거구요. 그러면 그렇게 선을 하는데 어떻게 오줌마렵다고 오줌누려 가고 똥마렵다고 똥을 누려 가느냐고, 일어나

든 걸 한데 놓으란 말입니다. 자기 조상을 천도시키려면 전부 자기 주인공에 놓으라 이 소립니다. 거기가 놓고 자꾸 가다보면 조상들이 자손들의 몸을 빌어서 자기 공부하는 차원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줘요. 잘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구요. 조상도 살다가 착을 가지고 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니 불에 들어가면 타죽을 줄 알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죽을 줄 알고 또 내 몸중이를 건너가 되는데 내 몸중이 속에 수많은 벌레들이 왕창 커져 가지고 세균들이 모두 널려져 있으니 그걸 밟고 어떻게 걸니까. 그러니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공부를 하거든 전부 거기가 돌아가게 넣으세요. '주인공 전부 한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 하고 다 거기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상들이 열명이든 스무명이든 천명이든 그냥 다 자기 아는 것만큼 다 알게 됩니다. 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236호 15면 법공양 기사중 '행' [고침] '복이란 무엇인지요' 답의 맨 마지막 문장 '선'은 매우 쉬운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는 '행'에 대해...의 질문이 잘못 들어간 것인바, 이

* 위 원문은 1999년 4월 18일 정기 법회때 실입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